

KDC 영화자료 분류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DDC 및 LCC와 비교하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chemes of Motion Picture Materials in KDC

이 명 희(Myeeong-Hee Lee)*

이 인 순(In-Soo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1. DD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KD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LC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
| II. 영화자료의 이해 | 4. 주요 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비교 분석 |
| 1. 영화자료의 특성 및 유형 | IV. KDC 영화자료의 분류체계 개선안 |
| 2. 선행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주요 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비교 | |

초 록

다양한 영화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유를 위해서 기존의 주요 분류표인 DDC, KDC, LCC의 분류체계를 알아보고, 영화자료의 특성과 함께 기존의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세 체계를 비교한 결과, DDC와 LCC 분류표의 영화관련 항목은 비교적 상세히 전개되어 있었으나 KDC 5판의 영화 관련 항목 수는 매우 미흡하여 영화자료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C 5판에서는 영화자료의 분류가 4개 강 하에 22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본 개선안에서는 9개의 강 하에 53개의 하위 항목을 세분하여 전개하였다. 특히 개선안에는 영화인물, 영화장르, 영화제, 각국의 영화 항목을 추가하였다.

키워드: 영화자료, 한국십진분류법, KDC 5판, DDC, LCC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KDC in the fields of motion picture materials. Classification schemes of the KDC, DDC and LCC for motion picture materials were analyzed and compared. From the results, KDC was found to be the least suitable classification system to handle motion picture materials because it had very poorly detailed subdivisions of items and incomplete subsidiary tables to develop some subject items to represent various aspects of motion picture fields. Some suggestions to cover the deficiencies of KDC for motion picture fields were made in terms of 9 subdivisions and 53 sub-items. Particularly, new subdivisions of 'types of genre', 'motion picture festival', 'worldwide motion pictures' and 'people related to motion pictures' were added.

Keywords: Motion Picture Materials,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DDC, KDC, LCC

* 상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mehelee@smu.ac.kr) (제1저자)

** 상명대 문헌정보학과 대학원(lis5815@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10년 8월 2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9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00여개 대학의 영화 관련 학과에서 매년 4,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한류열풍, 헐리우드형 블록버스트 영화 제작, 전문영화인들 외에 아마추어 영화인들의 활동 등으로 영화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 제작과 연구의 기본이 되는 영화자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영화자료실을 설립하여 다양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 대학도서관과 민간 도서관 차원에서도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영상자료원 업무는 영화필름의 수집과 복원, 디지털작업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체계적인 분류표를 고안하여 적용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는 민간 자료실에서는 자관에 필요한 분류표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거나 KDC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DDC를 사용하여 분류하므로 현재의 영화자료의 분류체계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산업의 대표적 산업인 영화산업의 육성과 함께 영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영화자료의 분류체계를 구안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존의 인쇄매체 위주의 주요 분류표인 DDC, KDC, LCC의 분류체계를 알아보고, 영화자료의 특성과 함께 기존의 분류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분류시스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KDC 5판의 영화자료의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영화자료의 분류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영화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영화자료 분류표 개선방안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먼저 영화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영화자료의 의의, 특성 및 유형을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 2) 영화자료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관계로 방송자료, 시청각자료의 분류·목록에 관한 연구논문과, 연극도서관과 영상자료원의 활동 현황과 운영에 관한 연구논문과 영화자료 보존 및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논문을 학술잡지, 학회지, 인터넷 자료를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 3) 일반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현황 파악을 위하여 DDC 22판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KDC 5판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LC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현황을 비교하였다.
- 4) 일반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를 비교한 후, 영화자료의 특성과 형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포괄성과 상세성을 지닌 KD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II. 영화자료의 이해

영화자료는 현대사회에서 선호되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대표적인 형태로 종래의 인쇄매체에서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영화자료 분류체계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영화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영화자료의 특성과 유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화자료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선행연구 또한 영화자료 또는 유사자료를 중심으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영화자료의 특성 및 유형

도서관 자료를 형태에 의해 구분하면 영상자료와 비영상자료로 구분되며, 영상자료는 다시 단편적이고 정적인 것과 연속적이고 동적인 것으로 구분되고, 영화는 영화자료(motion picture)와 녹화자료로 세분된다. 비영상자료 중에서 사진, 포스터, 실물 등이 영화자료에 속한다(김남석).¹⁾ 서울시교육연구원의 구분에서는 시청각자료에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레코드, 음반, 필름스트립, 투사용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실물모형, 모형, 표본, 디오라마, 파일교재, 그림과 사진, 지도와 지구의, 그래프, 도표, 포스터, 칠판, 게시판, 용판, 페그보오드, 자석판, 극적활동, 그림극, 인형극, 연시(Demonstration), 견학, 슬라이드, 투시자료 등을 모두 시청각자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칠판, 게시판, 용판, 페그보오드, 극적활동, 연시, 견학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²⁾ 또한, 최정태는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 자료로 분류하고 비도서자료를 다시 문서자료, 소책자류,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평면그래픽자료, 입체자료로 구분하고 있다.³⁾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영화자료는 시청각자료 혹은 영상자료의 하위개념이며, 특히 영상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이다. 영화란 고속으로 연속해서 영사할 경우 자연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1) 김남석, 비도서자료: 정리의 이론과 실제(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2).

2) 주영주, "정보자료의 분류에 관한 연구: Nonprint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1986. 8), pp.329-365.

3) 최정태,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pp.14-16.

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일련의 화상을 기록해 놓은 필름이다.⁴⁾ 현대 전자산업의 발달로 녹화와 재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화필름만이 아니라 비디오테이프나 비디오디스크에 담은 녹화자료까지도 영화자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화필름을 세분하면 재료에 의한 종류, 음향으로 본 종류, 스크린에 의한 종류, 내용에 의한 종류, 색채에 의한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영화자료와 녹화자료를 규격에 따라 구분하고 용기별, 녹화매체 및 녹화방식에 의한 분류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 초 음반자료와 문화적인 자료들을 소장하기 시작하였고, 1930년에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영화자료가 장서로 수집, 보존되었다.⁵⁾ 1960년대 들어서 각종 시청각자료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도서관의 개념도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 바뀌게 되었고, 시청각자료 중에서 영상자료, 특히 그 중에서도 영화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용의 기록 매체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가 영상자료의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되지만 영화필름만이 영화 자료는 아니다. 필름, 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하여 DVD, 영화포스터, 시나리오, 영화촬영 카메라, 영사기, 편집기, 조명기, 스틸사진, 영화 관련 캐릭터용품, 영화 촬영 시 사용하던 소품과 의상, 촬영장 세트, 영화인의 유품과 유물, 영화 제작 기록, 연구문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영화 필름 이외의 영화자료의 종류와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 1) 시나리오: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장면이나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를 표현한 각본을 말한다. 영화의 각본은 아직 희곡의 경우처럼 독립된 문학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영화제작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종류로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라고 하여 창작한 것과 문학이나 기록 등 원작을 영화 대본으로 각색한 것, 여러 사람이 공동 집필한 공동 시나리오 등이 있다.
- 2) 영화포스터, 전단지, 티켓: 이미지와 문자로 영화 내용을 표현한 시각매체로서 당대의 시대상과 생활상, 관심사 및 문제점까지도 담아내는 자료이다. 영화포스터가 시대적 맥락에서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화의 포괄적인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동시에 영화산업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영화 포스터는 영화 제목, 감독, 주연배우, 개봉 날짜 등 영화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영화포스터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가치관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문화자료이다.
- 3) 사진: 영화인들의 모습을 담은 인물사진, 촬영 현장을 담은 사진, 영화의 한 장면을 찍은 스틸사진 등이 있는데 이는 기록으로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즉 사진은 단순 명료하게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성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다.

4) 문헌정보학용어사전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486.

5) D. Oksana, *Video Collection Development in Multi-type Libraries*(London : Greenwood Press, 2002), pp.201-202.

6)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편저, 두산세계대백과사전(서울 : 두산동아, 2002).

- 4) 영화카메라: 동사진 카메라(movie camera, motion picture camera)라고도 하는데, 1891년 미국의 에디슨과 디슨이 키네토그래프(Kinetograph)와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라고 하는 관람상자를 개발하였다. 1895년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e)라는 영사기를 겸한 촬영기를 개발하였다. 영화카메라와 동시에 렌즈와 필름의 꾸준한 개발에 의해 전문가용 카메라와 8mm의 아마추어용 카메라까지 다양하다.
- 5) 영사기(motion picture project): 영화 필름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영사막에 비추고 동시에 기록된 음향을 재생하는 기계장치이다. 오늘날 영사기는 녹음과 재생뿐만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는 스테레오 녹음과 재생 및 음향의 재생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 6) 영화 촬영 세트, 의상 및 소품: 영화촬영 세트는 영화 촬영을 위하여 특별히 만드는 건축물로서 촬영소 야외에 세우는 규모가 큰 오픈 세트, 실내에 설치하는 스테이지 세트, 촬영 장소에 세운 로케이션 세트가 있다. 특수 촬영용으로 작게 만든 것을 미니어처 세트라고 한다. 로케이션이 곤란한 장소나 역사물 혹은 시대물을 촬영하기 위하여 반영구적으로 제작한 세트도 있다.
- 7) 각종 영화제의 트로피와 팸플릿, 기념품: 수많은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발행하는 팸플릿과 기념품도 영화자료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받는 트로피를 포함하여 각종 기념품들 역시 수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화계 전체의 기념이자 중요한 영화자료의 하나이다.
- 8) 일기, 자서전, 회상록: 배우와 감독의 자서전이 있고 영화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들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있으며, 배우 및 감독에 대한 연구 논문과 연구서들이 있다. 이것들 역시 일반 영화서와 더불어 영화인과 영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이다.
- 9) 각종 영화 캐릭터 상품: 만화영화나 SF영화의 경우는 영화 속 인물들이나 물건들이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은 관련 영화와 캐릭터 상품 매출로만 한해 10억 달러(2007년 기준)가 넘을 정도이다. 캐릭터 모형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도구와 문구용품, 티셔츠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어린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캐릭터 상품이 성인시장으로 넘어 오고 있는 추세이다.⁷⁾
- 10) 절취자료: 영화인들의 인터뷰 기사, 동정기사와 영화에 대한 소개 및 평론, 영화계 소식 등을 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려낸 기사이다. 폴더에 넣어 정리하거나 스크랩북에 찢히기도 하고 혹은 봉투에 넣어 정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종다양한 영화자료들은 도서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시나리오, 일기/자서전/회상록)과 취급하여야 할 것(포스터, 사진, 팸플릿, 절취자료), 취급할 수 없는 것(영화카메라, 영사기,

7) 매일경제 기사, 2009. 9. 20.

촬영세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과 영화전문자료실에서는 시나리오와 자서전이나 회상록 등의 도서자료 형태의 자료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료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2. 선행연구

현재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행해진 분류관련 연구논문은 KDC, DDC, LCC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류시스템의 비교연구 또는 개선연구 등이 상당수 이루어졌다. 이처럼 영화주제 이외의 기타 주제분야의 분류체계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지만 영화자료 분류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영화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영화자료 자체의 특성이나 성격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자료 자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화자료 이외의 다양한 주제분야의 분류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그 대신에, 영화자료 분야의 분류체계와 방송자료 혹은 시청각자료의 분류나 목록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영화자료의 보존 및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등을 간단히 언급하며 다루고자 한다.

영화자료 운영의 주체가 되는 영상자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영화전문도서관 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극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윤혜숙⁸⁾은 저작권 정보 서비스팀 구성과 국립영상아카이브 설치법 및 영상자료 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서영순⁹⁾은 연극도서관이 구성면에서는 전문도서관의 성격을 갖되 이용 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방송자료와 시청각자료의 관리와 분류 및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그리고 영상자료의 변천에 관한 다수의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김은영은 국내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자료실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영상자료의 선정과 수집정책의 성문화, 영상자료 분류규칙의 개발·적용을 제안하였고, 이민아¹⁰⁾는 방송자료 분류표와 한국십진분류표와의 비교를 통하여 알파벳 문자를 도입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국가기호 부여와 국가별 지리구분에 대한 조기성 도입을 제시하였다. 박수현¹¹⁾은 방송영상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아카이브 센터가 방송영상자료에 대한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미나¹²⁾는 방송 영상정보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를 제안하

8) 윤혜숙, 영상문화시대의 필름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한국영상자료원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2002).

9) 서영순, 연극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9).

10) 이민아, 방송자료 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5).

11) 박수현,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방안(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4).

12) 라미나, 방송 영상정보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였고, 주영주¹³⁾는 도서와 nonprint 자료가 함께 관리·운영될 때에는 KDC 외에 LCC나 DDC 등의 융통성 있는 병행을 권장하였다. 이만수¹⁴⁾는 시청각자료의 수집·분류·목록의 정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주제 분류기호의 경우는 KDC를, 저자기호는 이재철 동서저자 기호표 제5표 채택을 권고하였다. 박종근¹⁵⁾은 시청각자료 중 필름과 비디오테이프의 정리에 관한 개선점을 논하였고, 권성상¹⁶⁾은 대학도서관 보관 영상자료의 보존과 정리에 있어 미래에는 웹상에서 정보검색이나 접근을 할 것을 예측하였다.

도서관에서의 영화 컬렉션과 보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많이 행해졌다. Whichard¹⁷⁾는 대학도서관 미디어 장서 개발 사항을 강조하였고, James¹⁸⁾는 영화 목록을 자주 출간하고 온라인상에도 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Evans & Del-Pizzo¹⁹⁾는 Wales대학에서 이용율이 저조한 자료(sound, 영화자료, 그림, 지도 등)의 이용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Robert²⁰⁾는 미술학교도서관은 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서 전시회 도록, 경매가이드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Randy²¹⁾는 비디오 컬렉션에서 대중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블록버스터 영화나 제3세계 영화, 전위 영화 등도 포함해야 된다고 하였다. Oksana²²⁾는 대학의 media 사서들은 새로운 DVD를 소개하고 현재의 영화 경향들을 자주 리스트서브 해야 하며 영화자료와 설비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Stefano²³⁾는 도서관이 훼손되기 쉬운 영화자료의 복구와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하였으며, 미국립영화보존재단(National Film Preservation Foundation)²⁴⁾에서는 영화필름 보존 복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13) 주영주, 전개논문, pp.329-365.

14) 이만수, 학교도서관의 시청각자료 분류·목록에 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9).

15) 박종근, 시청각자료의 정리에 관한 연구: Film과 Video Tape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시청각전공, 1988).

16) 권성상, 대학도서관의 영상자료 변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전공, 2000).

17) Mithcell Whichard, "Collection Development and Nonprint Materials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Trends* (Summer 1985), pp.57-78.

18) C. James, *The Multimedia Library: Materials Selection and Use*, 3rd. Ed(San Diego : Academic Press, 1991).

19) G. Evans and J Del-Pizzo, "Look, Hear, Upon This Picture: A Survey of Academic Users of the Sound and Moving Imag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Wal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31(1999), pp.152-167.

20) Robert C. Ferrari, "The Art of Classification: Alternate Classification Systems in Art Librar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8(1999), pp.73-98.

21) P. Randy, "Cinema Collections: Public Libraries," In *Video Collection Development in Multi-type Libraries* (London : Greenwood Press, 2002), pp.184-197.

22) D. Oksana, "Cinema Collections: Academic Libraries," In *Video Collection Development in Multi-type Libraries*(London : Greenwood Press, 2002), pp.199-223.

23) Paula De Stefano, "Moving Image Preservation in Libraries," *Library Trends*, Vol.52, No.1(2003), pp.118-132.

24) 미국립영화보존재단, 영화필름보존가이드: 아카이브,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을 위한 기초 안내서, 김재성 역(서울 : 공간과 사람들, 2006).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연구로는 방송영상자료와 시청각자료의 분류현황을 고찰, 개선방안 제시, 보존 및 운영 방안을 주로 제안하였으며, 국외연구는 주로 도서관에서의 영화 컬렉션과 보존에 관한 방안으로 미디어장서개발, 영화목록 출간, 자료의 디지털화, 대중성과 공공성 유지,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영화자료 보존을 위한 인력 양성, 영화 영상자료 보존 방법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중점을 둔 연구는 다소 수행되었으나 도서자료를 포함한 영화자료 자체에 관한 만족할만한 분류체계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의 보존·수집과 함께 자료의 이용과 활용도 중요하므로 영화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도서관 분류체계 중 영화자료 분류체계를 점검·종합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KDC 분류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주요 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비교

현재 국내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류표인 KDC, DDC, LCC의 영화분야의 분류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는 항목별 분류보다는 각각의 분류체계에 나타나 있는 영화분야의 강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항목별 비교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1. DD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현재 사용되는 DDC 22판에서 여덟 번째 주류인 700은 “미술, 장식예술, 어문 형식의 예술, 공연 예술, 레크리에이션적 예술의 기술, 비평적 평가, 기법, 절차, 도구, 장비, 재료”를 다룬다. 예술가의 제작 중의 이념·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예술도 여기에 분류한다. DDC에서 <790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예술> 내 <791>은 순회공연, 서커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인형극, 동물공연 등 각종 공연과 관련한 분야를 분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영화는 <791.4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내 <791.43>에 분류되었다. <791.43 Motion picture>에는 일반 극영화와 공연예술을 분류한다. <표 1>은 DDC 제22판의 영화자료 분류체계이다.

<표 1>에서 보면, <791.43 영화>속에는 <791.433 영화타입(홈영화, 아마추어영화)>, <791.436 특수주제 영화>, <791.437 시나리오> 등이 세구분되며 전체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91.433 영화타입>은 다시 만화영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영화로 분류되고, <791.436 특수주제 영화>는 사조 및 장르와 특수한 테마와 주제로 분류된다. <791.437 시나리오>는 타이틀과 film review collection으로 구분된다.

<791.433 Types of presentation>에는 home 영화와 아마추어 영화가 분류된다. <791.433 4>에

는 만화 영화 뿐만 아니라 컴퓨터 만화영화, 인형이 나오는 영화도 포함된다. 그러나 만화영화의 만화제작, 만화영화의 촬영 방법 등은 영화에서 분류하지 않는다. <791.433 402 85>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들을 분류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만화영화는 이미 <791.4334>에 분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표 1> DDC 22판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분류번호	내 용
791.4	Motion pictures, radio, television
791.43	Motion pictures
791.430 1 - .430 8	Standard subdivisions
791.430 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430 92	Persons
.433	Types of presentation
.433 4	Animates films
.433 402 85	Data processing Computer application
.436	Special aspects of film
.4361	Films displaying specific qualities
.436 2 - 8	Films dealing with specific themes and subjects
.437	Films
.437 2	Single films
.437 5	Two or more films

<791.436 Special aspects of films>는 특수 주제 영화 이외에 각색 영화와 영화장르로 구분된다. <791.436 1>에는 <791.4361>의 기본번호에 T3의 11-17(영화의 사조 및 장르)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실험영화, 표현주의 영화, 미스터리, 호러, 코미디, 공상과학영화 등 18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코미디 영화의 경우 기본번호<791.4361>에 코미디(-17)를 적용하여 <791.43617>의 번호를 배정하였다. <791.436 2-791.436 8>은 특수한 테마와 주제를 다룬 영화를 분류하는데, 기본번호 <791.436>에 T3의 32-38(주제구분)을 적용한다. 모두 3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간과 시대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비롯하여 여성, 죽음, 폭력, 범죄, 음악, 괴물, 뱀파이어 영화 등 다양한 주제 구분을 함으로써 상세한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서부영화의 경우, 기본번호 <791.436>에 장소 <-32>에서 다시 T2의 지역구분표를 적용 <-78 Western United States>의 번호를 배정하여 최종적으로 <791.436 278>의 분류번호를 준다.

<791.437 Films>에는 시나리오와 영화 script(대본)를 분류한다. <791.437 2>에는 film의 타이틀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고, <791.437 5>에는 film review collection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791.430 1-.430 92>에서는 표준세구분하고, 다른 한편으로 <792.01-792.02>에 따른 형식구분을 한다. 이 형식구분은 <791.01 미학>을 시작으로 소극장, 어린이극장, 제작, 감독, 특수효과, 조명, 연기,

의상, 음향효과, 분장 등 24개 항목에 이른다. <791.430 9>에는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를 분류하고 영화사나 영화촬영소에 대한 기술, 비평 평가도 포함한다. <791.430 92>는 사람과 관련하여 분류되는데, 영화배우, 감독뿐만 아니라 영화 관련 장치, 설비, 기구 등을 다루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설비, 장치 등은 <792.01-792.02>의 표준세구분에 따라 <791.43 02>에 분류하고 영화배우는 <791.43 028 092>로 분류한다.

상관색인은 25개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감독, 시나리오, 공연예술의 3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791.43 Motion Picture>에 분류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영화에 분류되지는 않지만 영화와 관련 있는 <781.542 영화음악>, <778.55 영사기>, <725.823 극장>, <659.152 영화광고> 등을 포함하여 다른 항목들이 어떤 주제에 분류되는지 알 수 있다.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들은 보조표와 표준세구분에 의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되므로 상관색인에서는 영화와 관련되는 다른 분야의 항목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2. KD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KDC 5판에서 영화자료는 예술류 내의 한 강인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680) 내 영화(688)에 분류되고, 여기에는 영화 정책 및 기업 등이 포함된다. 전체 항목은 22개이며, 영화 이론 및 비평에 5항목, 영화제작과 연출 및 기술에 6항목, 영화장르 구분에 5항목, 영화형식 구분에 6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KDC 5판의 영화자료 분류체계는 <표 2>와 같다.

<표 2> KDC 5판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분류번호	내용	분류번호	내용
688	영화 Motion picture	688.2	극영화, 오락영화
688.01	영화이론	.3	기록영화(다큐멘터리)
.018	영화심리	.4	전위영화(아방가르드)
.019	영화윤리	.6	만화영화
.09	각국의 영화사, 평론	.7	텔레비전영화
688.1	영화제작, 연출, 연기	688.8	특수영화
.13	영화제작	.82	흑백영화
.15	연출(감독)	.83	색채영화(천연색영화)
.16	연기	.84	시네마스콕프
.18	대본	.85	입체영화
.19	영화기술	688.9	환등, 슬라이드

<표 2>를 보면, <688 영화> 내에 <688.1 영화제작, 연출, 연기>, <688.2 극영화, 오락영화>, <688.3 기록영화>, <688.4 전위영화>, <688.6 만화영화>, <688.7 텔레비전영화>, <688.8 특수영화>, <688.9

환등, 슬라이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88.01 영화이론>에는 영화이론뿐만 아니라 영화 정책 및 기업이 포함되고, 하위에 영화심리, 영화윤리, 각국의 영화사와 평론 등이 포함된다. <각국의 영화사, 평론>에서 영화사는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하였다.

<688.1 영화제작, 연출, 연기>는 영화제작, 연출, 연기, 대본, 영화기술 등 5개 항목으로 세분류되고 있다. <688.13 영화제작>은 촬영기술, 조명기술, 음향기술, 녹음, 자막, 세트촬영, 로케이션, 분장, 의상, 현상, 편집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688.15 연출(감독)>은 영화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16 연기>는 배우술, 배역 등을 포함하는데 연기와 배우술은 <681.6 연극>과 <688.16 영화>로 구분하여 분류되고 있고 배역은 영화분야에만 분류되고 있다. <688.18 대본>에서 각종극의 대본은 그 주제 하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대본²⁵⁾과 각본²⁶⁾을 구분하여 분류하되 각본은 문학작품으로 간주하여 <812.66 영화각본>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688.19 영화기술>항목은 <688.13 영화제작>에 이미 다양한 각종 영화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영화의 장르 구분(688.2-.7)으로서, 이에는 극영화(688.2), 기록영화(688.3), 전위영화(688.4), 만화영화(688.6), 텔레비전영화(688.7) 등이 있다. <688.2 극영화, 오락영화>에는 희극, 활극, 스릴러, 뮤지컬, 역사, 멜로, 흥, 전쟁, 사회, 심리 영화 등이 포함된다. <688.3 기록영화>는 PR, 여행, 문화, 과학, 뉴스, 교육, 시사다큐멘터리 영화를 포함하지만 자연, 환경, 역사 등 다양한 기록 영화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 <688.4 전위영화(아방가르드)>²⁷⁾ 항목에는 비슷하지만 달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컬트영화²⁸⁾와 독립영화²⁹⁾가 함께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88.6 만화영화>에는 클레이애니메이션(찰흙인형극), 그림자애니메이션, 3D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화영화는 극장용 만화영화와 텔레비전용 만화영화의 구분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688.7 텔레비전영화> 항목은 텔레비전용 영화인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영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역시 이 항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88.8 특수영화>에는 <.82 흑백영화>, <.83 색채영화>, <.84 시네마스콥>, <.85 입체영화>가 분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688.9>에 환등, 슬라이드를 분류하였는데, 동적인 영화에 반해 환등과 슬라이드는 정적인 영상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화에 분류한 것으로 생각한다.

25) 연극의 상연이나 영화제작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글.

26)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글로서 배우의 동작이나 대사, 무대장치 따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

27) 192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내용의 실험영화가면서 비상업적인 영화.

28) 저예산영화가면서 주로 반사회적인 내용과 잔혹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일반의 평가와 관계없이 소수의 집단에 의해 광적으로 숭배받는 영화.

29) 저예산, 비상업영화가이고 일반적으로 수분에서 1시간 이내의 단편영화가 대부분이며 소수의 관객과 독자적인 배급망을 갖고 있고 개인이나 동호인에 의해 후원과 제작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영화자료 중의 하나인 촬영기를 비롯하여 영화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영화자료들이 종류의 특성상 여러 분야에 나뉘어 분류된 것을 알 수 있다. 카메라, 영사기, 촬영기 등은 <555.63 사진 기계>에 분류되고 있다. <662 촬영기술>에는 조명, <658 그래픽디자인, 도안, 포스터>에 영화포스터, <618.62 극장>에 극장, <674.8 극장음악, 오페라>에 영화음악을 분류한다. <666.7 영상물 및 비디오 촬영술>에 소형영화 및 <688 영화>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 <666.72 촬영술>에는 영화촬영술을 분류하고 있다.

상관색인은 29개 항목으로 전개하고, 그 중 10개 항목은 <688 영화> 외의 분야에 분류한다. 영화와 관련 있는 다른 분야의 분류 내용으로는 시청각교육(373.32), 저작권(011.204), 대학교육(377.3), 영화관위생(517.78) 등이 있다.

3. LC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LCC에서는 영화를 'N Fine Arts'가 아닌 'P Language and Literature'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P>는 <PA-PZ>까지 모두 19항목으로 세분류하고 영화는 <PN LITERATURE: GENERAL AND UNIVERSAL LITERARY HISTORY. COLLECTION>의 <DRAMA> 내에, 그리고 다시 <Broadcasting>의 하위에 세분류하고 있다.

영화는 <DRAMA>속의 <Broadcasting>속의 <PN1990>부터 시작되고, <PN1991 Radio broadcasts>, <PN1992 Television broadcasts>, <PN1993 Motion pictures>, <PN2000 Dramatic representation. The theater>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 구분에 따른 번호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LCC는 비십진식 열거식 분류표이기 때문에 각 주류의 세분류 항목 수가 모두 다르다. 영화는 <1993-1999>까지 42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영화자료는 정기간행물 및 기관(PN1993), 영화법(PN1994.A1-5), 일반적인 주제(PN1995), 저작 및 저작자(PN1996), 시나리오(PN1997), 잡록(PN1998), 특수단체(PN1999) 등 크게 7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체는 3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항목의 하위에는 숫자 또는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되어 다시 세분류되어 있다.

정기간행물 및 기관(PN1993)은 다시 연감(.3), 박물관, 아카이브, 전시, 영화제(.4), 사전(.45), 역사(.5)와 연구논문과 교육 내에 일반저작(.7), 시청각교재(.75), 지역, 국가(.8), 고찰, 연구, 조사(.85) 등 모두 8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법, 조례(PN1994.A1-5) 내에는 미국에 국한하여 일반저작(.A2), 주(.A3), 도시(.A4) 등으로 구분된다. 타 지역과 국가(.A5A-Z), 타지역의 일반저작(.A52-Z)과 함께 청소년문학(.5), 기담, 해학, 풍자(.9)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General special(PN1995) 속에는 문학(.3), 윤리(.5), 유성영화(.7), 아마추어영화(.8), 주제 및 테마(.9) 등 5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시나리오는 Collection(PN1997.A1A-Z)을 비롯하여 개인(.A2-Z8),

〈표 3〉 LC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분류번호	내 용
PN1993	Periodicals and societies(정기간행물, 협회)
.3	Yearbooks(연감)
.4	Museums, archives, exhibitions, festivals, etc.(박물관, 아카이브, 전시, 영화제)
.45	Dictionaries(사전)
.5	History
.A1A-Z	General works
.A3-Z	By region or country, A-Z
	Study and teaching(연구 논문 학문과 교육)
.7	General works
.75	Audiovisual aids about motion pictures(시청각교재)
.8	By region or country, A-Z(지역, 국가)
.85	Examinations, questions, etc.(고찰, 연구, 조사)
PN1994.A1-5	Laws, regulation, etc.(법, 조례)
	United States
.A2	General works
.A3	By state, A-W
.A4	By city, A-Z
.A5A-Z	Other regions or countries, A-Z
.A52-Z	General works
.5	Juvenile literature(청소년 문학)
.9	Anecdotes, facetiae, satire(기담, 에로, 익살, 풍자)
PN1995	General special
.3	Relation to literature(문학)
.5	Relation to ethics, etc.(윤리)
.7	Pictures and sound, Talking pictures(영화와 소리, 유성영화)
.8	Amateur motion pictures(아미추어영화)
.9	Other special topics, A-Z(주제별)
PN1996	Authorship, scenario writing, etc.(원작자, 저술, 시나리오작가, 저작)
	Plays, scenarios, etc.(각본, 대본)
PN1997.A1A-Z	Collection
.A2-Z8	Individual(영화명, A-Z)
.Z9	Uncataloged
.5	Cartoon plays(만화영화 대본)
.8	Plots, themes, etc.(플롯, 주제 등 시나리오 작법)
.85	Film adaptations(각색, 번안)
PN1998	Miscellaneous(잡록)
.A1	Directories, Biography and portraits(주소인명록, 전기문, 인물사진)
.A2	Collective(단체)
.A3	Individual, A-Z(개인)
.A5-Z	Other miscellaneous(그 외 잡록)
PN1999	Special corporation, A-Z(사단법인, 특수단체)

Uncataloged(.Z9), 만화영화 대본(.5), 플롯, 테마(.8), Film adaptation(.85)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잡록(PN1998) 속에는 인명록(.A1), Collective(.A2), 개인(.A3), 그 외 잡저(.A5-Z)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기간행물 및 기관(PN1993) 내에서 역사(PN1993.5)는 재정을 포함한 역사를 분류하는데 일반저작(.A1A-Z)과 지역 구분(.A3-Z)을 한다. 예를 들어, Movie history: a survey / Douglas Gomery의 경우 분류번호는 PN1993.5.A1G636(PN1993.5.A1 → 영화역사 / G636 → Gomery LC 저자기호)가 된다.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 구분은 유럽(.E8), 러시아(.R9), 우크라이나(.R92U5) 미국(.U6), 캘리포니아(.U65) 등으로 한다. 연구논문과 교육은 일반 저작(PN1993.7), 영화를 위한 시청각적 저작(.75), 지역 및 국가 구분에 의한 저작(.8), 연구논문(.85) 등 4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청각교재(1993.75)는 영화에 대한 시청각 교재를 표기하고 지역, 국가(.8)는 각 지역이나 국가를 A-Z로 표기한다.

아래의 항목들은 PN이 아닌 <TR852 Photography of moving objects>를 참조할 것을 지시하는데 TR은 사진 분야이다. Cinematography, Motion pictures(TR845-899) 내에는 해저촬영(TR893.8), 광고촬영(TR894.6), 야외촬영(TR893.5), 영사기(TR890), 영화촬영 카메라(TR880) 등의 영화 촬영술 및 영화촬영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이 분류된다. 특히 <TR883 Special makes of motion pictures cameras, A-Z>는 영화촬영용 카메라를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분류 기호가 <TR 883 .B6>라면 스위스에서 제작되는 Bolex라는 영화촬영용 카메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잡저(TR899)에는 영화편집, 영화노출 등에 관한 저작을 포함한다.

이 외에 Films in programming(PN1992.8.F5)에는 TV에서 방영하는 영화(PN1992.63, DRAMA 참조)가 분류되고 <PN1992.8M6>에는 Motion picture cartoons가 분류된다.

법, 조례(PN 1994.A1-5)에서는 미국은 일반저작(.A2)과 State(.A3, A-W), City(.A4, A-Z)로 구분하고 타 국가 및 지역(.A5 A-Z)의 일반저작물(.A52-Z)을 분류한다. 그리고 청소년문학(.5)과 기담, 해학, 풍자(.9) 등이 함께 분류되고 있다.

<PN 1995>에는 연기, 비평, 미학 등을 포함하여 특정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분류하는데 문학(.3)은 영화와 관련된 문학을 분류하고 윤리(.5), 유성영화(.7), 아마추어영화(.8)를 분류하되 뮤지컬에 관한 것은 <ML(Literature on music)2075>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9>에는 위의 항목 이외 특수 주제에 관한 것을 알파벳순으로 무려 83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영화장르, 영화사조, 영화 주제, 특정 지역이나 직업에 대한 것 등 다양한 주제를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영화 장르에 대한 것으로는 Adventure film(.A3)을 비롯하여 코미디(.C55), 탐정 및 미스터리(.D4), 재난(.D55), 다큐멘터리(.D6), 실험(.E96), 공상과학(.F36), 갱스터영화(.G3), 역사(H5), 공포(H6), 법정(J8), 노동 및 노동 계급(.L28), 멜로(.L6), 에로틱(.S45), 폭력(.V5), 서부 영화(.W4) 등 15개 장르로 구분하고 있다. DDC나 KDC와는 달리 속편(.S29), 시리즈영화(.S3)

뿐만 아니라 성룡영화(.C37), 프랑켄스타인(.F8), 제임스 본드 영화(.J3), 설록 홈즈(.S5), 슈퍼맨(.S77), 타잔(.T3), 뱀파이어 영화(.V3) 등을 구별하여 분류한 것과 전단지 및 포스터(.P5)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기할 점이다.

원작자(PN 1996)에는 원작자 및 시나리오 작법을 분류하고 각본에는 시나리오와 관련 있는 분야를 분류한다. 즉 컬렉션(PN 1997.A1A-Z), Individual(.A2-Z8)에는 영화타이틀을 알파벳순으로 나타낸 시나리오를 분류한다. Uncataloged(.Z9), 만화 대본(.5), 플롯, 테마(.8)를 분류하고 Film adaptation(.85)에는 번안하거나 개작한 영화를 분류하고 있다.

잡록(1998)에는 목록을 포함하여 디렉토리 및 전기문 및 인물사진(.A1) 등을 분류한다. 단체(.A2)와 개인(.A3)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즉 배우나 제작자 및 감독의 경우 미국인은 <PN2287>, 캐나다는 <PN2308>, 중앙아메리카는 <PN2329> 등으로 지역 구분 하여 분류하고 있다. 배우의 경우는 특별히 영화와 연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는 PA-PT를 참조하도록 하였고 잡저(.A5-Z)에는 인명록 외의 다른 잡록을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단체(PN1999)에는 특수단체를 알파벳순으로 분류한다.

<PN>에 분류되지 않는 영화와 관련 있는 분야는 영화잡지(PN4784.M6)와 영화음악(ML3849)이 있고 영화산업(PN1995.9.M65)과 리메이크 영화(PN1995.9R45)는 <1995.9> 내의 특수 주제 구분에 속하는 항목들이다.

4. 주요 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비교 분석

위에서 살펴본 DDC, KDC, LCC 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를 항목 및 세구분, 장점, 단점의 측면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DDC는 영화의 형식구분을 먼저 한 뒤 역사, 인물, 형태, 장르, 시나리오 등으로 분류한 후 다시 항목별 세분류를 하여 모두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항목수가 매우 부족해 보이지만 형식구분을 통하여 극장, 제작, 감독, 특수효과, 조명, 이상, 분장 등 24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구분과 함께 T3C(11-18)를³⁰⁾ 적용하여 아방가르드영화, 미스터리영화, 코미디영화, 호러영화 등 19개 항목으로 영화의 사조와 장르 구분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 T3C(32-38)를 적용하여 영웅, 폭력, 뱀파이어, 범죄 등 다양한 테마와 주제를 다룬 영화들을 3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형식구분을 비롯하여 보조표에 의한 상세구분으로 영화 전반에 걸쳐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지시사항과 상관색인이 있어 영화와 관련 있는 타 분야의 분류현황도 알 수 있고 영화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³¹⁾들이

30) 미술과 문학의 스타일, mood, viewpoint에 대한 것을 영화에도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31) Motion Picture / Cinema / Film / Movie.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세한 분류가 가능한 반면 오히려 이 때문에 분류번호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 2) KDC는 영화 이론 및 비평에 5항목, 제작과 연출 및 기술 분야에 6항목, 장르 구분에 5항목, 형식구분에 6항목 등 전체 22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장점으로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하여 한글판으로 개정된 것과 DDC와 마찬가지로 상관색인이 있어 관련 주제들을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비교적 많은데, 영화심리(688.018)와 영화윤리(.019)와 같이 불필요한 항목이 보이고 각국의 영화사·평론(.09) 같이 분리·배정하여야 할 것도 있다. 영화제작(688.13)의 경우는 한 항목에 촬영, 조명, 녹음, 분장 등 11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DDC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분류번호가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장르 구분(688.2)에서도 용어 사용(활극, 희극 등)이 적절하지 못하고 구분 항목수도 미흡하다. 상관색인은 29항목으로 오히려 DDC의 25항목보다 많으나 영화/문화(688.3), 영화/과학(688.4) 등 전개내용이 본표와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영화각본(812.6)은 영화가 아닌 문학에 분류한 것과 혼히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용어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용어선택이나 전개 내용 등 상관색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3) LCC의 Motion Pictures(1993) 항목 구성은 정기간행물(1993), 법(1994), 일반저작(1995), 시나리오(1996), 각본(1997), 잡록(1998), 단체(1999)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세분류하여 모두 38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알파벳과 숫자(Cutter 기호)를 조합(E8 : 유럽)하여 지역 및 국가 구분을 하여 표기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영화촬영술과 영화촬영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은 사진(TR 845-899)분야에서 36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분류하여 거의 모든 영화 촬영 기법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화촬영용 카메라(TR883)는 카메라이름을 알파벳과 숫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영화 관련 실물자료들의 분류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저작(1995)의 특수주제(.9)에는 장르, 사조, 주제, 특정 지역이나 직업 등 알파벳순으로 무려 83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이다. 즉 다큐멘터리, 멜로, 법정, 서부 영화 등 15종류로 장르 구분을 하였고 성룡 영화, 타잔, 슈퍼맨 등과 같이 속편이나 시리즈 영화는 물론 전단지과 포스터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셋째, 시나리오(1996)를 영화분야에 배정하여 영화 타이틀(.A2-Z8)을 알파벳순으로 표기하고, 만화영화대본(.5), 변안하거나 개작(.85)한 시나리오까지 세분류한 것이다. 단점으로는 영화 재정(1993.5)과 역사를 동일 번호에 배정한 것과 KDC와 마찬가지로 영화윤리(1995.5)항목이 불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영화촬영술 및 기기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상세 분류를 한 것은 장점이지만 영화분야의 특성상 분류표 전체에 주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분류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겠다.

〈표 4〉 주요 분류표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비교표

DDC		KDC		LCC	
분류번호	내용	분류번호	내용	분류번호	내용
791.4	Motion pictures, radio, television	688	영화 Motion picture	1993	Periodicals and societies
791.43	Motion pictures	688.01	영화이론	1993.3	Yearbooks
791.430 1-.430 8	Standard subdivisions	688.018	영화십리	1993.4	Museums, archives, exhibitions, festivals, etc
791.430 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688.019	영화윤리	1993.45	Dictionaries
791.430 92	Persons	688.1	영화제작, 연출, 연기	1993.5	History Study and teaching
791.433	Types of presentation	688.2	극영화, 오락영화	1993.7	General works
791.433 4	Animates films	688.3	기록영화	1993.75	Audiovisual aids about motion pictures
791.433 402 85	Data processing Computer application	688.4	전위영화	1993.8	By region or country, A-Z
791.436	Special aspects of film	688.6	만화영화	1993.85	Examinations, questions, etc.
791.4361	Films displaying specific qualities	688.7	텔레비전영화	1994.A1-5	Laws, regulation, etc.
791.436 2-.436 8	Films dealing with specific themes and subjects	688.8	특수영화	1994.A52-Z	General works
791.437	Films	688.9	환등, 슬라이드	1994.5	Juvenile literature
791.437 2	Single films	-	-	1994.9	Anecdotes, facetiae, satire
791.4375	Two or more films	-	-	1995	General special
-	-	-	-	1995.3	Relation to literature
				1995.5	Relation to ethics, etc.
				1995.7	Pictures and sound. Talking pictures
				1995.8	Amateur motion pictures
				1995.9	Other special topics, A-Z
				1996	Authorship, scenario writing, etc.
				1997	Plays, scenarios, etc.
				1998	Miscellaneous
				1999	Special corporation, A-Z

〈표 4〉에서 보면,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영화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표는 LCC 분류표이다. 그리고 LCC는 하위 항목에서 지역 구분은 물론 장르 및 주제 구분이 세밀하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시사항과 표준세구분이 있어 DDC 역시 상세분류가 가능하다. 반면에 KDC는 전개항목의 내용이나 항목수가 다른 두 분류표에 비하여 현저하게 빈약하다. 두 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KDC 영화분야 분류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IV. KDC 영화자료의 분류체계 개선안

〈표 4〉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세가지 분류표에서 영화자료 분류 체계를 살펴본 결과, KDC 분류체계는 전개 내용이 DDC와 LCC에 비해 매우 미흡하였다. DDC와 LCC는 상세한 장르 구분과 주제 구분, 지역 구분 등 전개내용이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영화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영화자료의 특성상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분류된 까닭에 영화분야 분류표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KDC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항목의 전개가 매우 불충분하므로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자료 분류체계의 전개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화 관련정보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화관련 분야 서적을 참고한 뒤, 영화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학 현직 대학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표 5〉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분류 체계는 4개의 강으로 분류되고 22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표 5〉에서는 9개의 강으로 구분하고 하위 항목을 53개로 세분하여 KD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즉, 〈688.1 영화일반〉, 〈688.2 영화제작·연출·연기〉, 〈688.3 영화인물〉, 〈688.4 영화장르〉, 〈688.5 기록영화〉, 〈688.6 만화영화〉, 〈688.7 특수영화〉, 〈688.8 영화제〉, 〈688.9 각국의 영화〉의 9개의 강으로 전개하였다. 〈영화일반〉과 〈영화제작 및 연출·연기〉 항목은 KDC 제5판의 구분과 거의 비슷하지만 〈영화인물〉과 〈영화제〉, 〈각국의 영화〉를 새롭게 추가하고, 〈영화 일반〉과 〈기록영화〉 강이 개선되었다.

〈표 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88.1 영화일반〉은 KDC 5판의 〈688.01 영화이론〉 항목과 유사하지만 〈688.1 영화일반〉에는 〈688.11 영화이론〉, 〈688.12 영화사〉, 〈688.13 영화비평〉, 〈688.14 연구논문〉과 〈688.15 법과 제도〉가 포함되었다. 영화이론을 포함한 대신에 영화심리와 영화윤리 항목을 삭제하고, 영화사와 영화비평을 분리하였으며, 연구논문과 법·제도(저작권, 심의, 등급)를 추가하였다. 특히 연구논문을 포함한 이유는 현재 국내 100여개의 대학에서 영화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4,000명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어서 영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블록버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게 됨에 따라 법과 제도, 정책과 산업, 홍보,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추가하였다.

〈688.2 영화제작, 연출, 연기〉는 KDC 5판의 688.1과 거의 유사하나 〈688.18 대본〉과 〈688.19 영화 기술〉 대신에 〈688.24 시나리오〉와 〈688.25 영화기술·컴퓨터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조명기술, 음향기술, 녹음, 자막, 세트촬영, 로케이션, 분장, 의상, 현상, 편집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영화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특수효과와 컴퓨터그래픽도 포함시켰다.

〈688.3 영화인물〉은 신설된 강 항목으로서 감독(연출), 배우, 기획·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평론가·영화음악가 등 영화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였다. KDC에서는 영화감독의 중요성만을 주장하였지만 개선안에서는 관련되는 모든 직종의 사람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688.4 영화장르〉에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 〈기록영화〉, 〈만화영화〉, 〈특수영화〉를 제외한 유형의 영화를 포함하였다. 모든 최근 많이 제작되는 장르를 포함하여 극영화(드라마), 문예·전기, 범죄·스릴러, 전쟁·이데올로기, 코미디, 서부·무협, SF·블록버스터, 공포·재난, 뮤지컬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슷한 장르의 영화는 동일 항목에 배정하였다.

〈688.5 기록영화(다큐멘터리)〉는 개선된 항목인데, KDC 5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여 PR, 문화, 뉴스, 교육, 시사다큐멘터리, 역사, 자연·환경, 과학, 여행·기행으로 확대전개 하였다.

〈688.6 만화영화〉에는 특히 텔레비전 만화영화와 극장용 만화영화를 구분하였으며, 만화영화 대본도 포함하여 세구분하였다.

〈688.7 특수영화〉에는 전개내용을 변경하여 흑백영화, 색채영화, 입체영화(3D), 독립영화, 컬트·전위영화(아방가르드)를 포함하였다. 특히 최근에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컬트영화와 독립영화가 포함되고 KDC 5판에서 독립적으로 분류되었던 전위영화를 특수영화 속에 포함시켰다.

〈688.8 영화제〉도 신설된 강 항목으로서 국내영화제, 국제영화제, 해외영화제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종의 다양한 영화제가 부산과 서울 등에서 개최되어 영화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각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영화제 자료와 관련 도서도 세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

〈688.9 각국의 영화〉도 신설된 강 항목이다. 국내에서 영화산업이 문화산업의 한 아류로 정착되고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아시아권에서도 영화산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영화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아시아 영화를 세분하여 한국, 일본, 중국영화는 별도의 항목으로 배정하였고, 이외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배정하였다.

〈표 5〉 KDC의 영화자료 분류체계 개선안

KDC 제5판	개선안
688.01 영화이론 .018 영화심리 .019 영화윤리 .09 각국의 영화사·평론	688.1 영화일반 .11 영화이론 .12 영화사 .13 영화비평 .14 연구논문 .15 법·제도(저작권·심의·등급)
688.1 영화제작·연출·연기 .13 영화제작 .15 연출(감독) .16 연기 .18 대본 .19 영화기술	688.2 영화제작·연출·연기 .21 영화제작 .22 연출(감독) .23 연기 .24 시나리오 .25 영화기술·컴퓨터그래픽
688.2 극영화·오락영화	688.3 영화인물 .31 감독(연출) .32 배우 .33 기획·제작자 .34 시나리오작가 .35 평론가·영화음악가 .36 영화기술
688.3 기록영화(다큐멘터리)	688.4 영화장르 .41 극영화(드라마) .42 문예·전기 .43 범죄·스릴러 .44 전쟁·이데올로기 .45 코미디 .46 서부·무협 .47 SF·블록버스터 .48 공포·재난 .49 뮤지컬
688.4 전위영화(아방가르드)	688.5 기록영화(다큐멘터리) .51 PR .52 문화 .53 뉴스 .54 교육 .55 시사 다큐 .56 역사 .57 자연·환경 .58 과학 .59 여행·기행
688.6 만화영화	688.6 만화영화 .61 텔레비전 만화영화 .62 극장용 만화영화 .63 만화영화 대본

KDC 제5판	개선안
688.7 텔레비전영화	688.7 특수영화 .71 흑백영화 .72 색채영화 .73 입체영화(3D) .74 독립영화 .75 컬트·전위영화(아방가르드)
688.8 특수영화 .82 흑백영화 .83 색채영화(천연색영화) .84 시네마스코프 .85 입체영화	688.8 영화제 .81 국내영화제 .82 국제영화제 .83 해외영화제
688.9 환등·슬라이드	688.9 각국의 영화 .91 한국 .92 중국 .93 일본 .94 아시아 .95 유럽 .96 아프리카 .97 아메리카 .98 오세아니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화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분류표인 DDC, KDC, LCC 분류시스템의 영화자료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KDC 영화자료 분류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3가지 분류시스템을 가지고 비교한 결과, 영화자료의 분류체계 비교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DDC는 보조표를 이용한 형식구분과 지역구분, 지시사항과 상관색인이 있어서 영화와 관련 있는 타 분야의 분류현황도 알 수 있고, 둘째, KDC는 항목의 전개가 매우 불충분하므로 항목을 더 세분화하고 상관색인의 용어 선택이나 전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였다. 셋째, LCC는 DDC와 KDC에 비해 항목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영화자료 분류에 가장 적합하였으나 영화자료의 특성상 여러 분야에 나누어 분류된 까닭에 영화자료 분류표로 적용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자료 분야 서적을 참고하고, 영화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영화자료의 분류체계의 전개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KDC 분류체계는 4개의 강 항목과 22개의 목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선된 KDC 영화자료 분류체계는 9개의 강 항목과 53개 목 항목으로 세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영화일반>, <영화제작·연출·연기>, <영화인물>, <영화장르>, <기록영화>, <만화영화>, <특수영화>, <영화제>, <각국

의 영화>의 9개의 강으로 구성되었다. 영화이론과 영화제작 및 연출, 연기 항목은 KDC 제5판의 구분과 거의 비슷하지만 <영화인물>, <영화제>, <각국의 영화> 강 항목을 추가하고, <영화 일반>과 <기록영화> 강 항목을 보강하였다.

이 중 신설된 강 항목인 <영화인물>에서는 감독(연출), 배우, 기획·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평론가·영화음악가 등 영화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영화제>에서는 국내영화제, 국제영화제, 해외영화제의 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국의 영화>도 신설된 강 항목인데, 국내외에서 영화산업이 문화산업의 한 아류로 정착되고 아시아권에서도 영화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시아 영화를 세분하여 한국, 일본, 중국영화는 별도의 항목으로 배정하였고, 이외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배정하였다.

개선된 강 항목의 하위항목은 최근의 영화산업의 경향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다. <영화기술·컴퓨터 그래픽>에 최근 영화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특수효과와 컴퓨터그래픽도 포함시켰으며, <기록영화(다큐멘터리)>에서 시사다큐멘터리, 역사, 자연·환경, 과학, 여행·기행으로 확대 전개하였다. 또한, <만화영화>에는 만화영화 대본도 포함하였으며, <특수영화>에는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컬트영화와 독립영화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컬트영화, 독립영화, 전위영화 등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영화 분야의 용어 정의를 많이 시도함으로써 영화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도서자료를 주로 취급하는 기존의 주요 분류표인 DDC, KDC, LCC만을 대상으로 영화자료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은 제한점이다. 제언으로서 향후 '한국종합예술학교'와 '서울예술대학' 등의 예술전문교육기관과 영화전문자료실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안이 여전히 도서자료 위주의 영화자료 분류표에 적합한 것이지만 현재 생산되는 영화관련 자료는 도서자료뿐 아니라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여 DVD, 영화포스터, 시나리오 등 다양다종의 영화자료를 포괄적으로 망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류체계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